

## 제주특별자치도회 장영흥 회장

# 역사 이래 건설산업 전성시대를 구가하는 제주도회



전국 시·도회는 지난 해 개최된 총회를 통해 제9대 시·도회장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 지역에서 설비건설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듣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장영흥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주)영건 대표]으로부터 제주도회의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들었다. 장영흥 회장은 최근들어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는 제주지역에서 회원사의 정밀시공과 상생협력을 통해 기계설비가 핵심기술로 부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편집자 주]



**회장으로서 활동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는 바닷가에서 놀다가 한시간 안에 눈밭에서 놀 수 있는 곳입니다. 바다가 있고, 오름이 있고, 바람이 있는 낙원같은 곳, 싫증이 날 때 쯤 자연 경관이 수시로 바뀌는 곳, 사시사철 시시때때로 변화무쌍한 곳이 제주도입니다. 이렇게 산과 바다를 한시간 안에 볼 수 있는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제주도는 지난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기까지 저를 비롯하여 회원사, 제주도민, 그리고 온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주도는 이제 국내 관광지에서 벗어나 해외, 특히 많은 중국인들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해안가에서 한라산까지 포크레인 소리가 안들리는 곳이 없을 정도로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특히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 각종 행사시설, 귀농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건설 등으로 건설업체는 역사 이래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1만여명의 귀농인구 중 젊은층의 귀농인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시설 부족으로 신축공사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 시설공사는 100% 분리발주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회 회원사의 수주 활동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회원가입률이 꾸준히 상승되고 있어서 초창기 40여개 회원사에서 10년 사이 82개사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 같은 회원 증가는 비회원사에게 시공능력 관련 제반 서류를 일체 발급하지 않기로 한 총회의 결의사항도 한몫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성실적

이 지난 2년간 12% 정도 성장하여 전국 13개 시·도회 중 꼴찌를 기록했던 우리도회가 지난 해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강원도회를 앞질러 1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사가 아직까지 타 시·도회에 비해 규모가 작고 매출도 영세한 편입니다.

저는 지난 2006년 회장 취임 후 지금까지 9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회원사를 섬기고 업계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야 하는 봉사자로서 많은 역할과 다양한 협회활동을 해야 하므로 회장 선출 때마다 고사했지만 회원사의 적극적인 추대로 아직까지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며 회원사의 화합과 상생 분위기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원도급 영역확대, 그리고 하도급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민간공사 발주자들에게도 지역업체 활용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9년간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믿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제주지역 회원사가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협회를 중심으로 소통과 화합의 협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분리발주·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및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지역 내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회는 JDC에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적극 발주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100%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기에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교까지 분리발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분리발주는 제주지역 전체 수주금액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분리발주가 활성화 되기까지 저를 비롯하여 역대 회장님들, 그리고 회원사들이 일치단결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8년 전에는 교육청 감사에서 분리발주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 때 우리도회를 비롯하여 본회에서 적극 나서서 건교부(현 국토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등의 공문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결과 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회를 비롯한 제주지역의 전문, 전기, 통신 등의 건설단체가 연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일정 비율을 지역업체에 발주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 결과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의무화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공사의 경우 하자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데 육지업체의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시간적 여건이 어렵지만 제주지역 업체는 신속히 대응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외지 업체가 와서 공사를 했지만 섬지역이다 보니 인건비, 자재비, 숙식비, 물류비용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공사비가 15% 이상 상승되기 때문에 대부분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보통 10억원 이하의 공사는 외지업체가 할 경우 100% 적자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사의 경우 제주업체에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도회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민간공사에서도 제주지역 업체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 둘째, 회원사 화합과 유대 강화, 과당경쟁 방지

제주도는 한 다리만 건너면 친인척, 선후배 간 일만큼 매우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들어 제주지역의 활발한 경제개발 사업과 많은 인구유입으로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지긴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좁다 보니 어느 건설회사와 어느 기계설비업체가 협력관계라는 것을 뻔히 알기에 제살깎기식 무한경쟁을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서로 경쟁은 하지만 무리하게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과당경쟁을 할 경우 서로 파멸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회는 매우 도덕적이며 전국에서 가장 단합이 잘되는 시·도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와 장점을 꾸준히 지속시켜서 제주사회의 독특한 문화인 상부상조 정신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단합행사와 친목모임을 자주 개최하고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회원사 간의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등 소통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셋째, 기계설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장학사업

우리도회는 회원사 수도 많지 않고 기성실적도 그동안 전국 꼴찌를 기록했을만큼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도회에서는 회원사의 중지를 모아서 분리발주 및 적격심사로 수주했을 경우 공사금액의 0.3%를 특별회비로 징수하도록 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금액이 연간 1천2백만원 가량 됩니다. 이 금액으로 우리도회는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작은사랑의 씨앗 운동본부'를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못내는 초등학교 어린이의 급식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우리도회의 장학사업 취지를 심분



이해하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회원사에게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회원사에게 한말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제주도는 관광객 및 인구유입 증가로 건설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신공항 건설 계획으로 인해 성산 일대가 에어시티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밖에 휴양과 레저시설, 기존 시설의 개선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건설계획은 무엇보다도 제주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해치지 않도록 친환경적 설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도회 회원사에게 많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 기계설비가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는 핵심기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품질 시공을 통해 발주자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신뢰를 심어줘야 하며, 회원사간 화합과 소통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협회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도회는 앞으로도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비롯해 회원사 유대강화, 기계설비 이미지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제주지역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업무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제주특별자치도회 사무처 직원들(왼쪽부터 김기찬 사무처장, 백경미 과장)

**장영흥 회장은**

- 1950년생
-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 졸업
- 선일포도당 제주공장 공무부 설계담당
- 제주도 문화공보실 근무
-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제주시 분회장
- 기계분야 고급기술자 취득
- (주)영건 대표이사(現)
- 대한설비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現)
- 한라일보사 감사패
- 제주보훈지청 감사패
- 이시돌산업개발협회 감사패
- 학교법인 신성학원 공로패